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2월 7일(주일) 제1331호

“온누리는 선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2월 6일과 7일, 2021년 2차 선교헌금작성 선교헌금작성서, QR코드,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2021년 2차 선교헌금작성을 2월 6일과 7일 실시한다. 예배당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동참할 수 있다. 재능기부(QR코드)도 모집하고 있다.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규헌금'이나 '봉투헌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은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선교헌금작성이 끝나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와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선교헌금에 동참할 수 있다.

2021년 선교헌금작성에 동참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보석같은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강찬석 장로(동대문중앙공동체)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온누리교회 선교가 시대를 앞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작성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류대우 순장(동작공동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생겨서 일부

후원과 헌금을 줄이기는 했어도 선교헌금만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 시대 온누리교회 선교는 비대면 사역, 가정교회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교회와 사역을 이양하는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 임시귀국했던 일부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으로 복귀하고 있고, 복귀가 어려운 선교사들은 국내 이주민 사역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2019년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를 한 김성희 선교사(김포M센터)는 국내에서 미안마 난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뤄가고 있다. 김성희 선교사는 “중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들을 세우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국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간증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현지화, 온라인 플랫폼, 이주민, 난민 사역,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할 계획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6월까지 매월 화상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진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제작한 마스크를 쓴 탄자니아 어린이.

풍성한 은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의 기적

온누리와 함께하는 '90일의 기적'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은혜와 고백들이 차고 넘친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채널, 예배당 예배로 참여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완독한다.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은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공동체, 사역팀, 부서별 구성원들과 함께 헌혈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은자 권사(S브릿지공동체)는 “90일의 기적이 끝나는 부활절에 일어날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고, 서원열 순장(경기A공동체)은 “90일의 기적이 끝나도 성경 읽는 습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남미 권사(여의도공동체)는 성경일독 한 줄 소감을 “주의 길을 따라 항상 정진하기를 기도한다”고 했고, 원유미 권사(관악금천공동체)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썼다. 박유진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 SNS에 “가족이 수혈받을 때 참 감사했는데 자신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남겼고, 장대순 성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 열기도 뜨겁다. 토요새벽기도회 일 평균 유튜브 참여 인원은 3,470여 명, 현장 참여 인원은 146명이다. 토요새벽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에서 생중계 된다(관련기사 3-4면).

/ 정현주, 김영선, 홍하영 기자

장애인 자활 돕는 '착한 소비'

변동코이노니아 제품 주문 제작 및 구매

코로나19로 자활을 꿈꾸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변동코이노니아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 주문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복지시설 변동코이노니아에 명함, 달력, 봉투, 작업복, 조끼, 포스트잇, 테이프

등을 주문하면 장애인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다. 변동코이노니아 제품을 주문 제작하거나 구매하면 기부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변동코이노니아에서는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985-3609

기부금 영수증 비대면 발급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신청

온누리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비대면으로 발급하고 있다. 온라인, 이메일, 전화로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즉시발급'이나 '우편발송 신청'란을 클릭하면 된다. 이메일(bess0417@naver.com)과 전화 신청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발급은 제한된다. CGNTV,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해외선교회, 한동대학교 기부금 영수증도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온누리교회 02-3215-3265(3264, 3618, 3253) / CGNTV 02-796-2243 www.cgntv.net

NGO 더멋진세상 02-2271-2248 www.abetterworld.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032-336-1042 www.timor.kr / 한동대학교 054-260-1063~7 www.handongedu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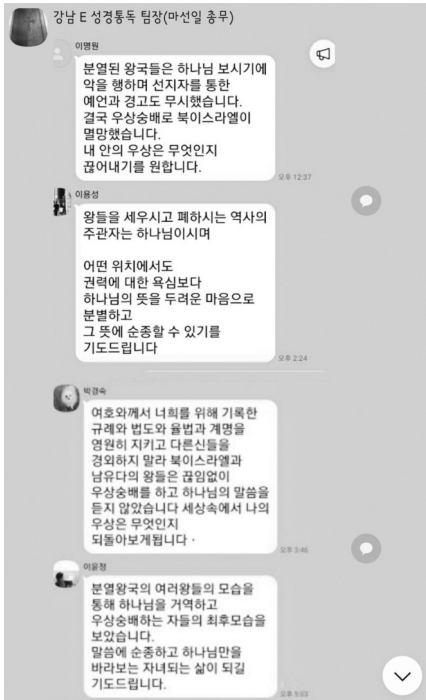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



▲ 서산 온누리교회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현장(왼쪽), 서원열 순장(경기A공동체)이 아내(이미경 집사)와 함께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고 있다(오른쪽).
◀ 강남E공동체 성경일독 단체채팅방 '한 줄 소감'.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두 달째 접어들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변하고 있다”는 귀한 간증을 쏟아내고 있다.

이은자 권사(브릿지공동체)는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작년에 어머니를 모시느라 새벽기도회를 잘하지 못했고,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일이 많이 줄어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부활절까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제 마음과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는 부활절에 일어날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옥이 권사(서산 온누리교회)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았다.

“올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공동체 단체채팅방에서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링크를 공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일독 영상이 오전 5시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덩달아 저도 굉장히 부지런해졌습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꾸준히 섬기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문영결 형제(요셉공동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졌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말씀을 집중

적으로 듣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세우고자 90일의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지난주에 불안한 시대임에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명확하게 알고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도희 성도(부천 한사랑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90일의 기적에 참가했습니다. 그 여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즐기고 하고, 말씀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회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컴퓨터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서원열 순장(경기A공동체 안산다락방)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팀장으로 섬기면서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첫 번째 은혜는 생애 첫 성경일독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다.

“부끄럽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난생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경일독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감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신기해하고 대견해 하더라고요(웃음).”

두 번째 은혜는 성경일독 팀장으로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이다. 서원열 순장은 성경일독 단체채팅방에 올라오는 한 줄 소감을 읽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목

도하고 있다.

“성경일독 초반에 ‘성경 읽는 게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줄 소감을 남긴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한 줄 소감이 ‘은혜가 된다, 감동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등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성도님의 성장과 변화를 보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성경 읽는 것을 놓치거나 밀리는 성도님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응원하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더라고요.”

서원열 순장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90일이 지나도 성경 읽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다.

“90일의 기적이 끝나더라도 계속 성경일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시시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1월 28일~2월 3일)

-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은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지만 그 죄로 인해 다윗의 가정이 점차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는 삶이 아닌 순종으로 날마다 삶을 돌이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 이수연 성도(경기A공동체)
- 본래의 관습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 이인순 성도(경기A공동체)
-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현실적 생각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하는, 실재하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인 것 같다.
/ 강향숙 성도(북누리공동체)
-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통해 나의 교만을 경계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하상우 집사(강남D공동체)
- 발 갈던 엘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엘리사가 키우던 소를 잡고, 정기를 땀감으로 사용함은 기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 김종문 집사(북누리공동체)
- 개하시의 행동에서 소탐대실한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을 봅니다. 늘 깨어있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 윤경옥 집사(강남E공동체)
-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악행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쫓겨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 오영란 권사(여의도공동체)
-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움을 고백합니다.
/ 옥수연 성도(관악금천공동체)
- 인생 전(前)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 인생 후(後)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솔로몬!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마치길 원합니다.
/ 이미경 성도(경기A공동체)
-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정희 성도(고양은평공동체)
- 솔로몬이 여호와께 부와 명예가 아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 박재영 형제(대전 온누리교회)
-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해주셔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이 겸손을 숭선수범 행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 광일정 성도(서초D공동체)
- 백향목의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의 지성소가 정결하기 원합니다.
/ 안소현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함께 하면 행복 두 배! 은혜 두 배!

온누리복지재단, 하늘대학부 안내팀의 생명나눔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김영선, 홍하영 기자



함께 헌혈해서 두 배의 기쁨과 감사함을 맞은 온누리복지재단 기관장, 임직원들(왼쪽)과 하늘대학부 안내팀(오른쪽).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월 4일 기준 497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다. 참가 소감과 은혜를 나누는 간증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이 뜻깊은 생명나눔의 기적에 사역팀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온누리복지재단과 하늘대학부 안내팀 구성원들이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면서 행복 두 배, 은혜 두 배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생명나눔의 기적을 독려하고,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송영범 대표이사, 각 기관장, 복지재단 임직원까지 모두 11명이 서울역 헌혈의 집을 방문했다. 코로나 19 국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하자는 송영범 대표이사(양재공동체)의 제안이 그 시작이었다.

“코로나19로 헌혈이 줄어 피가 부족하다는데 이웃들을 섬기는 온누리복지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관장들이 모범을 보이고자 다 같이 서울역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이웃들을 섬기고 헌혈

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기 관장(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이날 생애 첫 헌혈을 했다.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두렵고 떨려서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빗진 마음을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권면으로 온누리복지재단 구성원들이 단체로 갔더니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헌혈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형인데 A형 혈액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8주가 지나면 또 헌혈할 수 있다고 하는데 ‘90일의 기적’ 기간동안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잖아요?(웃음).”

김갑록 소장(서울역죽방촌상당소)은 지병으로 평생 포기하고 살았던 헌혈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

“1994년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있는 헌혈차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헌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병을 갖게 되면서 저는 헌혈을 못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하면서 제 피를 나눌 것입니다.”

하늘대학부 안내팀 진한솔 형제, 김형민 형제, 배장호 형제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함께 동참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늘대학부 안내팀 단체대화방이 시끄러웠다. 헌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한 마디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간이 맞는 청년들끼리 헌혈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진한솔 형제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헌혈이 정말 특별했다고 고백했다.

“늘 해오던 헌혈이라 익숙할 줄 알았는데 이번 생명나눔의 기적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헌혈이 개인의 봉사나 헌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내 피를 나누

는 헌혈을 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이 떠올라 헌혈의 의미가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지금까지 헌혈한 횟수가 각각 스무 번이 훌쩍 넘었다. 습관이 될 만큼 오랫동안 헌혈을 했는데 이번만큼 뿌듯한 적이 또 없었다. 진한솔 형제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헌혈을 적극 추천했다.

“헌혈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헌혈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했구요. 더 많은 공동체에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하는 돌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한솔 형제가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헌혈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영적인 유익 외에도 봉사활동 시간이나 건강도 챙길 좋은 기회입니다. 간단한 피 검사로 간기능 상태, 철분 상태, B형·C형간염 바이러스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도 실천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얻고,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헌혈, 이것이 공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헌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프트카 레드카펫 ‘프라이빗 헌혈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헌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20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는 6월 말까지 운영되고, 전혈만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은 자연과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더 많은 헌혈자에게 픽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별로 운영 지역이 변동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자 소감

“90일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아빠와 딸이 생명나눔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누립니다. 16번째 헌혈하는 아빠, 만 16세가 되어 처음으로 헌혈을 하는 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달 뒤에 또 오자며 약속합니다.”

/ 김윤정 성도

“생명나눔에 동참합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 후 고위험군으로 양수검사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주님의 보살피심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아픈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동참했습니다.”

/ 손상기 성도

“서산에는 헌혈의 집이 없어 지난 토요일 오전에 고3 큰아들과 함께 아산으로 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작은 헌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 나눔으로 전해져 회복되고,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한정갑 성도, 이호재 성도

“기적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온누리에 기적의 열매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 김동현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최근 교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행을 할 때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선한 행실을 보이고, 가장 희생적인 섬김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한 행실 때문에 존재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할 때만 교회로 존재했다면 교회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 온 복음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진리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부정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분명 진리인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우리 삶에 차이를 좁혀 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으면 가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 진리이기 때문에 모방해서 만든 모조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로부터 ‘무자적자’ 혹은 ‘거짓 사도’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우 낙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단지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받은 직분(ministry) 때문입니다. 직분이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1절).

바울이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때마다 그를 지탱해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해서 계시받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제도와 정관과 내용을 만들어서 믿기로 결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공동체였다면 수많은 역사적 과오로 인해서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행했던 수많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직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당신들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부족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바울은 쏟아지는 공격에 자신의 직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여된 직분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살펴 보아도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2절).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추구한다면 오탁과 비난, 반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을 버려야 합니다. 간교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왜곡해서 해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우리는 ‘빛의 자녀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비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4절의 ‘이 세상에 신이 하는 일’과 6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하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4절).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6절).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6절은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취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취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하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실체들

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계몽이 아닙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속에 재창조되고, 어두운 영혼에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대조됩니다. 비교종교학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를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으로 한 문장에 나열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석가모니, 공자 등을 한 문장으로 나열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분류법이 아닙니다. 영국 언론인이자 비평가 G. K. 체스터턴은 이런 분류법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와 창시자들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고,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같은 문장에 배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 분류되는 종교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 문장으로 배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은 “하나님, 그 외의 신들, 악마들, 그리고 철학자들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된 인권, 자유, 인간됨의 회복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종교도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등종교, 고등종교로 구분합니다. 기독교는 고등종교라고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체계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사뎀니즘에서 다신교,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 문화인류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진화론자들이 원시인, 미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증거가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있다.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이 가득한 바다'라고 표현한다. 기독교와 다른 세계관들도 인생에 존재하는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다. 고통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통은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을 말한다.

세속적 무신론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 자신과 관계없는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전능하지 않거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거나, 전능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든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원인을 잘못된 사회 제도와 문화 때문으로 생각한다.

반면 기독교는 첫 사람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 사이의 관계의 뒤틀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 등으로 생성된 인간의 원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고통의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방법도 세계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무신론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고통이 사회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제시한다. 이것을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이 당면한 고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고통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로 실존하는 고통을 없앨 수 없으며, 인생의 상당한 부분에서 직면하는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반면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인간 간에 뒤틀린 관계를, 자연과의 파괴된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제시하신다. 킬페트릭은 "어떤 세계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 세계관의 방법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없앨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느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속심리학에 실망하게 되고, 기독교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 세속심리학에서는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의 '원죄'를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타락'이라 할 수 있는 심각한 죄이다. 그 선택 이후 인간의 영혼은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다스릴 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악에 의해 지배받는 형편이 되었다. 이 상태는 유전에 의해 후손에게 전달되었는데,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한두 가지의 형질의 획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 출현을 의미했다."

잘못된 본성에 대한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 온 의지를 하나님께 반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인간에게는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머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며 고통을 관계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한 제1세대 심리학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찾아 그것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마틴 셀리그만을 필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강화하려는 긍정의 심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5년 타임지의 '특수 심신문제'를 다룬 기획조사에서는 종교적인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행복감을 느끼는데 종교가 다른 분야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통합적 서사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는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연구한 '행복의 조건'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행복은 부, 명예, 성취에 있지 않았다. 관계적 연결이 좋고, 많은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행복감을 느낀다. 육체적 질병 중에도 행복감을 느끼며 나이가 들어서도 더 나은 기억력을 유지한다. 예일대 산토스 교수도 '심리학과 좋은 삶'이란 강의에서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이웃을 돌아보는 삶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고통의 근원을 알 수 있고, 해결책을 알 수 있다. 세속심리학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제안하는 좋은 관계, 감사, 마음의 여유 같은 것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바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들어온 조언이다. 무엇보다 모든 고통의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거저 주어졌다. 기독교 심리학과 세속심리학의 조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와 같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믿을 것인지의 선택 말이다.

묵상: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의 고통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크리스천을 위한 연애상담

사랑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신앙 갈등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라!

"제게는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제가 평생 그려면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얼른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교회에 가지는 말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괜찮는데 자신에게 강요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도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신앙 문제로 부딪힙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신앙이 견고한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려할 때 외적, 내적 조건을 보면서도 '신앙'을 중요한 조건으로 여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고후 6:14)"는 말씀을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본이 되는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며 기도한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이성적인 이끌림이 아닌 감정적인 이끌림 혹은 무의식적인 이끌림인 경우가 많다. 자신도 모르게 애착을 느끼고, 따뜻함을 경험하고,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고픈 감정이 생기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자신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끌리거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결핍을 따뜻하게 채워 줄 이성에게 끌린다. 비슷하면서도 나의 결핍을 채워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구애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어린 시절 자신이 채움 받지 못했거나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아린 곳을 채울 수 있는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연애이자 결혼이다.

보통 우리는 외적인 면도 어느 정도 고려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해 준 이성을 보면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결혼을 빨리하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신앙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고민이

많아진다. 사연을 보내준 형제도 여자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자친구가 거부하고 있고, 교회 가지는 말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신앙 문제가 이 커플의 갈등의 요소다. 이 갈등의 영역은 결혼 이후 증폭될 수 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여자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물어보라. 예수님에 대한 반감보다 교회에 대한 반감일 수 있다. 예전에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먼저 듣고 이해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부정적이라면 결혼생활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보라.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하고, 영적인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없으며, 자녀의 신앙도 부부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섣한 행실로 사랑하며 기다려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과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배우자

를 전도한 사례들이 있기에 충분히 고민하기 바란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얼마나 클지 공감이 된다. 신앙 문제로 헤어졌을 때 신앙을 가졌지만 다른 부분에서 형제가 바라는 점을 갖지 못한 이성을 만나면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타인'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신앙을 쉽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이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에 그 사랑도 귀하다. 선택은 당사자가 하겠지만, 사랑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과 신앙의 갈등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 결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
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1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감 · 사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예배와 추모예배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드리되 함께 만날 수 없는 부

모와 형제들은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다면 더욱 뜻깊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배 중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연을 나눈다면 보다 감동적인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550, 통248).....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1:14.....	가족 중에서
설교	보이지 않는 함께 함의 능력.....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경배와 찬양 493).....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보이지 않는 함께 함의 능력

들어가는 말

작년 추석에도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 함께 사랑의 문안과 정겨운 식탁을 나눌 수가 없었는데, 금년 설 명절도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 예배와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미 오래도록 제한되어 왔기에 이제 우리들의 소중했던 일상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듯 진정한 ‘함께 함’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구약시

대 ‘성막’ 또는 ‘성전’을 짓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여 계신다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사 66:1~2).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 가운데 진정한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지라도 진정한 성막과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함께 함’의 진실과 신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다**”: 본문은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가시적인 시력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보는 영적 시력을 가리킵니다. 요한공동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불가시적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며 나아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권면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요 20:29).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떤 가시적 실체 너머의 신비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는지라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은 또한 요한공동체가 보았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

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심을 강조한 표현이며,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서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은혜’를 얻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진리’를 알고 영원한 자유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과 선교가 멈춘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볼 수 있는 은혜와 진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로 흘러들어갈 만큼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영성을 크게 위협하며 절망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위대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현실에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신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함께 함’이란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진정한 ‘대면’이란 가시적 시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진정한 ‘사역과 선교’란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의 은혜와 진리가 스스로 흘러넘쳐 열방과 민족으로 들어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열정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시편 139:7~10.....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438, 통49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10:39~42.....	가족 중에서
설교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설교자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경배와 찬양 387).....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들어가는 말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겨울을 어디에서 보내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절정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겨울을 체류하신 장소는 매우 의미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40절). 요단강 건너편은 죽음으로 예표되는 광야와 생명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을 나누는 상징적 경계선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던 특별한 의미와 상징, 그리고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신 것은 분명히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던 세례 요한을 추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곳을 특별하게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40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회개와 세례를 베푸는 자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추억하시는 것과 같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살아있는 신앙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추억하시며 그리워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이 현재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

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에 머무신 것만으로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 사람(예수)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깨닫기 시작했으며(41절), 나아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42절). 세례 요한은 죽은 자였으나 그가 한 말과 행실은 아직도 살아있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인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인의 신앙과 삶과 사역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신앙이 더욱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을 담대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교지

다문화 차세대 선교!

한국 생활 적응, 학업 및 정서 지원, 복음 전파까지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내체류 외국인이 250만을 넘어섰고, 곧 300만 이주민 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꼭 돌봐야 할 선교지가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다문화 차세대'다. 다문화 차세대가 늘어나고,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도와야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주배경 다문화 차세대를 위한 화성 레인보우스쿨 문화체험 현장(위),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참여하는 김포 OGA 토요특별활동(아래).

다문화 차세대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2019년 13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학생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는 입국 시기, 출생국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된다. 부모 중에서 한쪽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태어나면 '국내출생', 부모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에 입국하면 '중도입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외국인 학생'이라고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다문화 차세대는 국내출생 108,069명(79%), 중도입국 8,697명(6%), 외국인 20,459명(15%)이다. 매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9년에는 이주배경 및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다.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섬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다. 지역별 차이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71%가 거주하고 있다. 전남과 전북에는 국내출생 95%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 OGA

다문화 차세대에게는 학업과 정서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온누리교회는 안산, 화성, 김포, 평택, 남양주에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평생교육원, OGA(Onnuri Globle Academy) 등을 설치해 다문화 차세대를 돌보고 있다.

안산M센터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평생교육원, 화성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실과 학업 위주로 다문화 차세

대들을 섬기고 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다문화 차세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화성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 레인보우스쿨은 여성가족부가 뽑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OGA(Onnuri Globle Academy)는 다문화 차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각 지역 M센터에서 다문화 차세대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주로 정서지원과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의 소망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다문화 차세대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들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매우 좋아한다.

화성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 레인보우스쿨을 수료한 압둘보리(11살, 우즈베키스탄)의 소망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다.

“아빠가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8살 때 엄마랑 같이 왔어요. 저는 한국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대신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레인보우스쿨에 등록했어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었어요. 잘 배우고 적응해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말리아(15세, 키르기스스탄)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뜨겁다.

“저는 지난해 한국에 왔어요. 처음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엄마아빠, 동생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수학과 미술이 재미있거든요. 저를 잘 가르쳐주는 레인보우스쿨이 정말 좋아요”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호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걱정이 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

는 공간’이 흔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김포M센터 OGA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 차세대들을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몰살틈없이 섬기고 있다. 주중에는 방과 후 돌봄을 하고, 토요일에는 다양한 특별활동,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나나하나제(8살, 미얀마난민)는 일주일 중에 김포M센터에 오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날마다 김포M센터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친구들이 많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기 때문이다.

“김포M센터에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아서 좋아요. 친구들과 언니들도 있고요.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도 정말 좋아요.”

김포M센터는 수년 동안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천을 거쳐 김포에 정착한 미얀마 난민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안식처다. 나나하나제의 엄마 아니모제(미얀마난민)가 김포M센터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포M센터가 정말 너무 좋아요. 한국말을 잘 모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김포M센터가 가족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미얀마난민들이 김포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김포M센터를 정말 좋아해요. 늘 감사합니다.”

다문화 차세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자 사역지다. 다문화 차세대를 잘 섬기면 부모들에게까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도들의 관심과 달란트를 활용하면 또 하나의 선교 역사를 쓸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등학생을 위한 멘토링과 학업 지원 등을 도와줄 성도들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문화 차세대를 위한 섬김 하나씩 했으면 정말 좋겠다. 안산, 화성, 평택, 김포, 남양주에 있는 M센터를 방문해서 섬기는 것도 좋고,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시설을 찾아가 봉사하는 것도 좋다.

문의: 온누리M미션 02-3215-3730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두 번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그동안 크게 변
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과 부담
감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내 모습이
라도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
하시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했다. 하루하루 겸
손하게 배움을 되새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
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애썼다고 칭찬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였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시선
을 과하게 신경 쓰며 살았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는 낯새라도 있으면 죽을 것처럼 힘들
었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신앙도 그럴
듯하게 포장하며 살았다.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분위기
가 어색해질까 봐 항상 양보하고 순응적인 모
습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사는 게 오래되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게 느껴졌다.

결혼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
다. 그런데 가족이 생기면서 실체가 하나둘 드
러나게 되었다. 혼자 참고 억누르면 편해지던
상황이 가족들이 생기면서 더는 불가능했다.
교회에서는 힘든 봉사를 하면서도 밝은 표정
과 온화한 태도로 섬기다가 집에 와서는 바다



서유경 성도(이촌공동체)는 파워임팩트를 수료하며 더 친밀한 아내, 공감해주는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다.

난 체력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기
도 했다. 남편도 힘든 외과 전공의 생활을 하
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지친 몸으로 집에 오는
데 예민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깨닫는 계기였다. 어릴 때
바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과 나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부

모가 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서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하려고 하니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됐다.

먼저는 남편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텐
데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늘 바쁜 남편이
라 언제부터든 나의 필요를 포기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일상의 사사로
운 것들은 당연히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불만
이 쌓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졌
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마음
을 열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지혜롭게 표현하
도록 노력해야겠다.

아이들과 진심으로 눈을 마주치고 공감해주
는 엄마가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겠다. 웃
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주는 말, 공감
하는 태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시금 깨달았다. 제발 깨닫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매일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많
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놀란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 안 되는 기회
라 생각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지혜롭게 잘
보낼 것을 다짐한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처음에
는 큰 기대를 안 했었다. 하지만 매시간 하나
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었다. 나눔도
너무 좋았다.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분과 성도
님들께 감사하다. 부족한 내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유경 성도(이촌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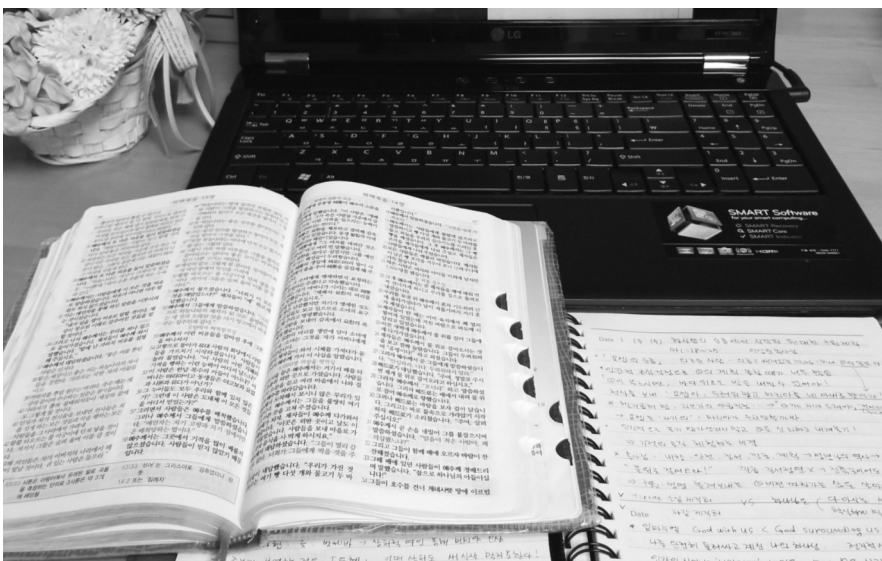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지난해 9월 어느 주말 아침, 당찬 다짐과 함
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았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
코로나19로 얼룩졌지만 이 가을만큼은 아름
답게 살아보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첫 강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
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이 얼마
나 기쁜지 모른다. 빛진 자들의 나라, 용서받
은 자들의 나라,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
라.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한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탕자였고, 거라사
광인이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음을 깨달
았다. 그 수치와 슬픔, 비참함과 비통함이 예
수님의 피로 다 씻겨 말갭게 빛나는 얼굴이 되
게 해주시는 나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 주
시고, 예수님의 심장과 피로 살아가며 사랑으
로 정체성이 변화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
가도록 초대받았다. 할렐루야!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이연미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는 강의를 들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다. 마지막 때
에는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함께 마귀의 최후 발
악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을 위하여 해야 한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전진해야 한다. 이 험난한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약자, 소
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매 강의마다 얼마나 분명
하게 드러나던지 모든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
었다. 부정한 우리에게 친히 손 내밀어 만지시

고, 부정함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파괴된 관계들을 회복시
키시고, 사망을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
하시며 마귀의 세계를 깨뜨리신다. 또한 하나
님의 능력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을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통해 약 4개월 동안 들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도 감회
가 새로웠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를 말
씀의 은혜로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엇보다
매주 온 맘 다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신원
석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
린다. 매주 자료를 올려주시고, 섬겨주신 공동
체 리더십들의 수고에도 감동했다. 감사를 드
린다. 강의마다 수원들의 과제를 취합해서 제
출해주신 순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
다. 온 몸과 마음, 존재를 다 바쳐 우리를 사랑
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찬양
과 경배를 영원히 올려드린다!

/ 이연미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전문가 기고

결혼의 위기는 영적 위기!

사탄의 계략 이기는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과학
연구협회 출판팀장)

10여 년 전, 연예인들의 가상 결혼을 연출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연예인들의 일상을 통해 개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여서 그런지 비록 가상이지만 정

성껏 배우자 역할을 수행해냈다.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보여주고 대리만족을 시켜줘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근 한 방송에서 비슷한 이름의 다른 내용인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다. 결혼에 대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다. 4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시대의 비극이 ‘이혼 예능’을 만든 것이다. 제작자는 흔하게 이뤄지는 이혼 풍속에 대해 진정한 부부 관계를 고민하고자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못내 이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마지못해 사는 부부들에게 진정한 부부 관계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성역화와 완전한 ‘균형’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대리통치하고 있었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남자가 외로워 하거나 독신 상태를 불평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며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셨다. 결혼은 인간의 요구나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고전 11:9).

결혼은 남자의 총 책임 하에 돕는 자로서의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보조나 종속을 뜻하지 않는다. 차이를 보완하는 완전한 ‘균형’을 의미한다. 성역화 차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다. 남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만 온전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범죄 현장에서 성역할이 무너졌다.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여자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하지 않았고 죄를 묵인했다. 여자는 유혹 앞에서 남자와 상의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무너

뜨렸다. 그 결과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는 자기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평생 땀 흘려 경작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벌은 성역할의 조화가 변질된 것이다. 여자는 남편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었고, 남자는 그에 맞서 권위적으로 아내를 지배하려 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창 3:16).

인간의 죄로 인해 변질된 결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

창조 질서다. 권위는 남용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부부의 성역할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의 리더십에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아내의 조언과 동역이다. 남녀 관계를 적대관계로 보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결혼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잊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따르며 스스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자

의 터전인 가정마저 무너뜨리려 한다.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 못 하게 해서 최소한의 정체성마저 잃게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의 위기는 단순한 시대 풍조나 문화적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를 흔들려는 영적 위기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직후부터 결혼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여자를 꾀어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떠나 독자적 행동하게 했다. 남자에게는 리더십을 포기하고 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결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에덴동산 밖 죽음으로 부부를 내몰았다. 그 이후 성경에 드러난 결혼의 위기는 극도의 성적 타락을 보여준다. 일부다처, 간음, 근친상간과 살인, 집단 강간, 동성 간 성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끝에는 무서운 율방불의 심판이 있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간의 동일한 죄악을 오늘날 또 다시 보고 있다.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적 위기의 극복은 결혼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전투에서 우리의 적(敵)은 배우자가 아닌 사탄이다. 배우자를 이간질하기 위해 사탄은 생각을 공격한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 공격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음란한 생각을 넣어 부부간의 정절을 소홀하게 한다. 배려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넣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탄의 계략을 능히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가 하나님의 무기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구원을 주신 진리의 말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은 사탄이 주는 거짓 생각을 파괴 할 것이다. 결혼의 원리에 맞춰 남편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돕는 자로 창조하신 아내가 지혜롭게 동역하며 주님이 주신 승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

죄인 된 몸으로 결혼한 인생에 갈등 없는 부부는 없다. 먼저 가정 예배드리자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존재인 것만 같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생각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창조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에덴동산을 맞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결혼은 영적 전쟁터이다.

이 전투의 적(敵)은 배우자가 아닌 사탄이다.

사탄의 무기를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창조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도의 관계에 빗대어 말했다.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그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림이 되는 단어가 있다. ‘복종’과 ‘머리됨’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부 간의 복종은 굴종이나 위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을 보여주셨듯, 동등한 부부 사이에서의 복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복종은 남편의 머리됨에서 출발한다. ‘머리’는 권위를 뜻한다. 남편의 권위는 그가 갖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성역할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들을 존재하게 한 전통적 결혼모델을 마치 청산하거나 개선이라도 해야 할 구습(舊習)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방종에 자신을 내어 주었다. 자유가 최고 원리라고 주장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인본주의자들이 제시한 진보적 모델은 무고한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급증하는 이혼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부부 관계의 정절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 덕에 간통죄가 없어졌다. 혼외 성관계는 물론 혼전 성관계가 유행하며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불안요소를 증가시켜 우리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성역할을 잃어버리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다가 이제는 동성결혼을 주장하며 자녀들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CGNTV 2월 15일 기독교 OTT ‘퐁당(Fondant)’ 출시



지난 2월 4일 열린 퐁당 출시 설명회에서 이재훈 담당목사가 기독교 OTT ‘퐁당’을 설명하고 있다.

CGNTV가 2월 15일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을 정식 출시한다. CGNTV가 출시하는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은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양질의 순수 복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검증된 복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단과 사 이비 콘텐츠로부터 성도들을 보호 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로 한

국 교회와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CGNTV에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뿐 아니라 각 교회와 기관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들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신앙성장영역 점검지’를 활용해서 개인별 성향과 콘텐츠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AI가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교회별 커리큘럼 및 학적관리(LMS), 온라인 예배 라이브 기능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 1월 28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퐁당 출시 설명회가 온라인(Zoom, 유튜브 라이브)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목사는 “퐁당이 교회의 벽을 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교회의 기도와 참여를 호소했다.

문의: 02-792-069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배실 집기를 후원해주세요”

김포M센터 미얀마공동체 예배실 준비 중

김포M센터가 미얀마 이주민들을 정성껏 섬긴다는 소문이 나면서 미얀마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M센터에서는 미얀마 이주민 근로자들과 난민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들과 더욱 활발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미얀마공동체 예배실’을 준비 중이다. 미얀마 이주민 근로자, 난민 30가정이 이용할 예정이

다. 김포M센터는 취업,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구자현 선교사(김포M센터)는 “김포M센터가 미얀마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냉온풍기, 빔프로젝트, 앰프, 신디사이저, 드럼 등을 후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10-6869-4290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켄달 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영상’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한 온누리교회 목회사관학교가 한창이다. 오는 2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2일에는 2021년 목회사관학교 세 번째 강의가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영상’을 주제로 R. T. 켄달 목사가 강의했다.

이날 R. T. 켄달 목사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R. T. 켄달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R. T. 켄달 목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 정현주 기자

온라인 온비아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월 오전/저녁, 목 저녁, 토 오전, 일 저녁반

온라인 온비아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온비아 기초과정은 1년 동안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 세 과목을 배운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필수 과목으로 2학점을 부여한다.

온비아 기초과정은 월요일 오전과 저녁반,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전반, 일요일 저녁반이 운영된다. 월요일 오전반 3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저녁반 3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반 3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반 3월 6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일요일 저녁반 3월 7일부터 매주 저녁 8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반별로 개강 이후 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반별로 20명을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세 과목을 합해서 11만5천 원이다(교재 발송비 4천 원 별도).

문의: 02-822-9480

온누리 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실 운영

온누리 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화상(Zoom)으로 운영된다. Zoom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아래의 QR코드로 접속해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빙고



양재

온라인 전도폭발훈련 훈련생 모집

서빙고 주간반/저녁반, 양재 주일반/수요반

전도폭발훈련 서빙고 31기 주간반과 저녁반, 양재 29기 주일반과 수요반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주간반은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저녁반은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양재 주일반은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양재 수요반은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은 별도로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별도).

문의: 010-3801-1215(서빙고 주간반)

010-8625-9000(서빙고 저녁반)

010-8711-2831(양재 주일반)

010-6288-4825(양재 수요반)

‘보라 통독’ 3월 19일 개강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보라 통독’이 3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보라 통독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성경을 쉽고 깊이 있게 통독하기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라 통독)(두란노서원) 저자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3월 12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주차별로 게시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은 OBC 2학점이 인정된다. 문의: 02-2078-3279

두란노어머니학교 114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1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4기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물품 포함)이다. 개척교회와 농어촌미자립교회 사모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본부 114기 한함).

문의: 02-2182-9110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이벤트

현혈증, 인증사진 제시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을 응원하기 위하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성도들이 현혈증이나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해 준다(일부 품목 제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도 있다. 할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란노서점 생명나눔의 기적 응원 할인이벤트는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796-2310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참가자 간증



/ 정민욱 멘토(허브대학부)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져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마 7:7).

‘과연 문이 열린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퇴근길 차에 올라탔다. 오늘도 역시나 하는 마음에 라디오를 틀고 석양이 진 어둠을 뚫고 한강변을 달리면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 부딪혔던 세상일들을 걱정하고 고민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리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라는 고민만 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다.

‘과연 문이 열린 것인가?’라는 고민은 내가 청년의 때에 했던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고민만 하면서 ‘이미 늦었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했다. 그 고민과 체념의 시간이 늘어만 갔다. 낡은 포도주에 익숙해진 사람은 금세 새 포도주를 원할 수 없다. 키워드는 ‘금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과 패턴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낡은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 환경과 패턴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

만, 결국 낡은 포도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 차에 올라탄다. 어김없이 라디오 볼륨을 높인다. 그런데 요즘은 라디오가 아니라 유튜브를 연결한다. ‘90일 공동체 성경일독’을 열어서 오늘 통독할 말씀의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지친 나를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과 확신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준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도 극복해야 한다. “나를 찾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용기다. 이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청년의 때에 정말 아프고 쓰라린 심정으로 자책하고 나약하다고 했던 나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꼭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반드시 주신다.

20대~30대 젊은 청년들이 꼭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나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매일 들으며 새 힘을 얻고 있다. 자신감을 결단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송현진 성도(도곡 파워웨이브 교사)

영생을 소유한 삶

내게는 정말 사랑하는 올케가 있다. 여동생 같은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다. 작년 8월, 사랑하는 올케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갑작스럽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뇌출혈로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다. 사돈어른은 나와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놓인 어르신 영정사진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영정사진 밑에는 제사음식이 놓여있었고, 향냄새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불과 2주 전 내게 안부를 물어주셨던 사돈어른을 장례식장에서 뵈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주 미루고 있던 가족 전도를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평소 나는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많았다. 혹시 복음을 거절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그

동안 내가 전도했던 지인들이 생각났다. 너무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두서 없는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으로 포장해서 소개했기 때문이다. 내 전도에는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도폭발훈련에서 배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다. 이것들은 성경의 맥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회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생을 소유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다. 영생을 소유한 삶이 오늘을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장님의 담대한 선포와 전도 활동을 보면서 도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온비아 과정 수료 간증



/ 안선미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온비아 과정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삶’ 과목으로 진행된다. 갈라디아서 강의부터 어렵고 해매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깊이 배우며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과정을 끝내고 친한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집사님의 어머니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다. 예전의 나라면 부끄러워하고 많이 망설였을 텐데 온비아 과정을 수강한 이후에는 달라졌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자 감사의 순간이었다. 집사님의 어머니는 심방 이틀 후 돌아가셨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갈라디아서와 함께 수강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 선교사님은 대단하고 나와 다른 분이라 생각했는데 평범한 엄마였고, 옆집 친구 같았다. 선교사님과 함께 사춘기 자녀를 걱정하면서 친해질 무렵, 선교사님이 예상보다 빨리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사역지로 떠나는 선교사님을 보면

서 선교헌금이라도 해야 하나, 추운 사역지에 전기장판이라도 사드려야 하나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헤어졌다. 선교사님께 아무것도 못해 드린 것을 아쉬워하던 중에 로마서 과정이 시작됐다. 로마서 교재에서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했다. 그 순간 선교사님께 안부 메시지가 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고민에 답을 주시는 것 같았다.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여쭙보았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계획하심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온비아 과정의 마지막 강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갈급함과 한계를 알게 했다. 나를 돌아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늘 영적 패배감과 정죄함으로 괴로워하던 내가 믿음의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큰 위로를 받았다. 앞으로도 성경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선교팀장의 호소



/ 박차훈 집사(양재2000선교 공동체선교팀장)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선교 환경이 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도 있지만, 선교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공동체(성도)가 선교에 직접 참여해야 할 때이다. 선교 지역과 관계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방위 선교를 할 수 있다. 선교지에 거주하는 선교사의 사역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선교사의 약 30%가 급히 귀국하게 되었을 때 온누리교회의 대응도 빠르다. 디지털 사역이 활성화되며 사역은 현지인 주도로 이양되고 있고, 온라인 선교단체(SWIM)에서는 난민들을 섬기며 화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선교사 위주의 선교에서 성도들이 직접 뛰는 선교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미 2000선교가 주관하는 선교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 선교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이 이주민과 국내 난민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한국어선교팀도 있다.

선교는 선교사님 뒤편이지만 선교사님과 결연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

공동체는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타문화권에 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다. 그래서인지 선교사님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만 불러줘도 눈물을 흘리신다.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삶을 드린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존재에 생명의 샘이 솟는다. 선교사님의 존재를 공동체에서 알고 있기만 해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런 이유로 선교는 교회(공동체)가 한다. 모든 공동체, 다락방마다 결연 선교사님이 있다. 다락방 결연 선교사님을 순예배에 초대해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잘 지내시나”고 안부를 묻자. 그리고 어려움은 없으신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주님의 지상 명령의 영적 원리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순예배에 초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장로칼럼

권사칼럼

그 사랑과 피(血)로 회복

대왕참나무의 소망



홍해남 장로
(분당A공동체)

새해 들어 90일의 기적 새벽기도와 성경일독 등 온누리교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고, 이것으로 비롯된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계획한 귀한 일정들이다.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은 코로나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천이다. 십자가의 두 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은 코로나19로 힘든 의료 현장, 부족한 피를 나누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이며 시의적절한 실천 방향이라 하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건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여 왔다.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의 검사보다 더욱 정밀한 혈액 검사를 거치기에 헌혈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평생의 근무처였던 연구소 생활 중에는 매년 연구소에 헌혈차가 왔다. 헌혈차가 온다고 며칠 전 안내가 되면 수첩에 표시해줬다가 헌혈을 하곤 하였다. 연구소 정년 후 대학의 특임교수로 부임된 후로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매년 헌혈을 하였다. 헌혈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감사가 있었고, 헌혈하면 피를 생성해내는 조절 기능이 원활해진다는 이야기를

상기하며 기쁜 마음으로 피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여왔다.

올해의 헌혈은 대한민국 교회의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는 의미까지 있어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거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헌혈의 집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수도권에 폭설이 예보된 날이라 퇴근길에는 한두 송이 눈이 흩날리기도 하였다. 헌혈하며 인증사진을 찍으니 간호사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이에 우리 교회의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을 설명해주었다. 간호사는 “그 교회 되게 좋은 교회네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헌혈을 마치니 이벤트 기간이라며 평소보다 푸짐한 기념품까지 안겨 주었다. 헌혈기념품 이벤트를 할 만큼 헌혈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헌혈의 집에서 나오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변한 듯하였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설로 미끄러운 길을 힘들게 운전하며 마중 나와 준 아내를 맞으며, 우리는 헌혈을 통한 이웃 사랑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헌혈은 이웃 사랑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공동체 SNS 채팅방은 나의 영을 깨우는 기폭제이다. 매일 새벽 올리는 SNS 알림이 나의 잠과 영을 동시에 깨우는 귀한 울림이 되고 있다.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하며 오늘도 코람데오의 하루를 시작한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크다 하여 대왕이란 말이 붙은 대왕참나무는 대기오염 정화, 미세먼지 저감 등 그 효능이 뛰어나서 가로수 길이나 공원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단풍잎은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곤 하는데 대왕참나무만큼은 유독 가지에 잎이 오그라진 채 붙어 있다. 낙엽은 제때를 알고 떨어져야 아름다운 법인데, 꼭 세상에 미련이 있어 악착같이 버티는 추한 모습 같았다. 나는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모습이 싫고 눈에 거슬렸다. 곱게 늙고 고상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어엿이 설 것을 꿈꾸었기 때문일까?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요즘, 주님께서 어느 날 “이 나뭇잎이 겨울에도 끝까지 매달려 있는 이유를 아니?”라고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 자세히 보고 또 보았다. 만지기만 하면 바스라질 것 같은데도 그 잎은 세찬 겨울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함박눈에 덮여도 그 무게를 감당하며 끝까지 붙어 있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 봄이 오고 새순이 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라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창세 전에 디자인한 것이지.”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끝까지 매달린 예수님이 보였다. 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나의 편견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을 때 월계관과 월계수 묘목을 대왕참나무로 대신해서 수여했다. 그가 시상식 때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대왕참나무 묘목으로 가렸다는 상징성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아름답고 완벽하고 옳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옛날에는 전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허무해지고, 코로나19로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낯두리를 듣곤 한다. 이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작년 여름부터 공원에서 마스크를 끼고 은퇴권사 삼총사가 만나 걸으면서 말씀 암송을 했다. 머리가 석두라서 금세 한 것도 잊어버려 어렵다고 했지만, 반복이 기적을 가져온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시도한 첫 주부터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 짧은 한 구절을 암송했는데 뒤의 문장까지 해석이 되어 기뻐했다고 고백했다. 또 “노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같이 되었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온 것처럼 저에게도 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반복했을 때 시편 다섯 편을 암송하고 스스로 놀랐다고 고백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도 누렸다. 내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힘들었을 때 84세 언니 권사가 기도를 해줘서 통증이 사라졌다.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저마다 밀반찬을 하나씩 담아와 식사 교제를 대신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언젠가 우리도 대왕참나무의 잎처럼 났는데 새순이 되어 세상의 오염을 씻어내는 기록으로 남는 꿈을 꾸다. 대왕참나무처럼 소망의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마지막 때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우리는 겨울에 오그라진 채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잎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새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놀라운 일, 복음을 다음세대에 전하도록 강건하게 하소서.”

신앙에세이



정형권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나는 한국의 여러 세대에서 그 유명한 1958년생 개띠이다. 1958년생 개띠가 왜 유명한지 생각해봤더니 6.25 한국전쟁 전후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난 세대가기 때문인 것 같다.

30대 중반 즈음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대했던 적이 있다. 당시 3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였던 나는 신앙적으로도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사역에 자신감도 있었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면서 가끔 외국에 초청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내가 30대 중반에 이 정도인데 60살 넘어서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

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잠 20:29)이다. 누군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나는 진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미래를 그려보았다.

나는 2001년 온누리교회 교역자로 오게 되었다. 두란노서원에서 8년 동안 편집장으로 지내면서 교회와 기관에서 맡긴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너의 설교와 신앙은 지금 얼마나 자랐니?” 나는 자라고 있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세월의 덕을 보고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의 삶과 신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교는 써서 읽기에 바빴고, 신앙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왜

나의 삶은 기대한 만큼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탔던 차를 바꿔야 해서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다. 중고 외제 차가 눈에 들어왔다. 가격을 봤더니 내가 사도 될 만한 가격이었다. 중고차 중개인에게 전화하기 전에 내 자리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에게 말했다.

“저 이번에 중고차를 삽니다.”
“어떤 차를 사시는데요?”
“외제 중고차인데 가격이 싸요. 이왕 중고차 살 것 외제 차로 사기로 했어요.”
그 말을 마치는 순간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비싼 외제 차를 타요?”
“외제 차지만 중고차예요. 가격도 일반 중고

차보다 싸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무슨 외제 차를 사?”
나는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살 차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2014년형 SM5였다.

그날 이후 달라지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진 것이다. 또한 나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나의 본심을 들켜 버린 것이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나는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새로 산 차는 폐차할 때까지 타겠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그래,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한번 피곤함에 축 처진 몸을 다시 일으켜서 할 일을 향해 움직인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예수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 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인간들이 기억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면서 여러 우상을 섬기고 사마니즘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니즘에서 유일신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사마니즘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마지막에서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남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사단의 역사로 넘어가고 사마니즘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3절).

이 세상의 신이 끊임없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빛을 어두운 마음에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의 발광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혼들의 마음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영들에 의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참된 인간 존중의 역사가 성경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참된 인권, 참된 자유, 참된 인간 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종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5절).

바울이 믿고, 실천하고 있던 복음전파에 대한 견고한 반석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발광체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강력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어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불렀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전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세 번째 단계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 시대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선인의 종처럼 섬겼습니다.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고 섬겼습니다. 종으로서 섬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민족,

그 나라 백성들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후 2세기경 로마 엘리트 계층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알려 주고 싶었던 한 사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1의 종족은 로마인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무슨 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2종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 율법의식이 그들만의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의 문화에 고립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지역 관습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 로마 사회에 동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 다. 세상의 향락과 부요함에 도취되지 않은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른 나라에 잠시 여행 온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시 사회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종 됨을 전파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더욱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3의 종족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 그리고 고백

저는 2013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열여섯 살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인도 북동부 지역의 깔림퐁에 위치한 ‘Dr. Graham’s Homes’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서 열리는 조회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교내 목사님의 짧은 말씀과 축도를 듣고, 인도 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사귀 친구들은 저를 끊임없이 도와 주었습니다. 내가 낯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먼저 다가와서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할 걸 알면서도 물어보고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중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말들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안 좋은 점들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 ‘심리상담사’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면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안 좋은 점들이 먼저 보였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시선과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앞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진로를 찾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온 학과가

있었습니다. 동물 매개 심리 치료학이었습니다. 동물을 매개로 사람을 상담하는 것인데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에서 학업을 모두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아동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저의 목표는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세상의 깔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대학생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열어서 그

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공부나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제 편이시기에 꿈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꾸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 이라엘 자매(감비아)

* 이 간증은 선교사 자녀 간증집 <마주보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명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혜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미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2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럴 7층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유옥현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길 9 서산온누리교회
- **통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길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과천시 초월로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lao Guam 96913

-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 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 오uckland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o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saba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오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 **북경**
간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ng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SHI KAIFAKU KOU'AN MAOYIQU 1QU DZU
102ZHAO
● **대련**
강운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台山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 388室
Shàngháishì Mí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3lou 388shi
● **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Kaishuanqu Xianggangdongli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Bob Koo Joseph C hu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은주 김우현 김성민 김성연 연옥경
김진현 김현환 김인혜 김경은 옥경은
김지혜 김희찬 김창식 박민희 박지혜
김하성 홍기배 문하나 구희선 사재우
박상정 박현준 손민희 사재우
신정자 안대성 안기원 이미혜
이상성 이주연 이현우 임기훈
이재경 이영진 정성정 정성우 임지우
윤성자 정성동 정정진 정지연 지영숙
지자연 정희정 정지영 지자연
정호 단 최진희 최진희 최진희
하보라 하정호 하현희 최진희
시메리 핸슨 오
-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김영호 장로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사인택 이정기 임병욱
정길환
- ◆시무장로**
고성환 권태수 김수호 김재중 동수호
고창택 권태제 손정래 신재중 신재우
이상필 우우성 이광훈 이명호
이성환 이준상 정진용 정호준
조기배 조성민 고대라 노리호
최규호 황관희
- ◆명예장로**
김영호 엄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길일 장로 민동진 김명환 홍두수 김연수
장정식 장로 윤준창 임태영
추교영
- ◆성가사**
고영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경 권규수
김박선 김현환 김명환 김남우 박민희 권경숙
이지연 김현환 김용재 하영필 오영혜
이은경 임유경 이정현 이정현 오영혜
유종환 정영진 정현경 조종호 조종호

광고

QT 인도자 세미나 'QT 人 투게더'
 일시: 2월 18일(목)부터 2주간 시청 가능
 대상: 두란노 QT 베이직 세미나를 이수하신 분으
 로 소그룹(구역, 셀, 목장, 순 등) QT나눔 시스
 템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교회의 목회자, 평
 신도 리더십
 회비: 4만 원
 준비: 성경책, 필기구, 강의안(다운로드)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온누리
복지재단

▶ **남포하노로남지중장기청소년년집 지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취업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
 일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 **경기남부청소년지리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활품 후원요청**
 내용: 취업 뒤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용품 및 생활
 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 **시립옹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취업지원 일자리 알선 통한 재취업 지원(경
 비별,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
 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책 정

심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하의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성탄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보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답

서핑고 은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하·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R(학업 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돌봄 지원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영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인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역 상담 가능)
 하·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돌봄 지원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처

1/28(목) 용산 함유민 집사 모친상 고 권응순
1/28(목) 성동광진 홍성덕 집사 빙부상 고 노항태
1/30(토) 도곡 박상무 성도 부인상 고 이승남
1/31(주일) 마포 전해민 집사 모친상, 이효림 성도
빙모상 고 권연희
1/31(주일) 성북 김영구 성도 모친상 고 홍금동
2/1(월) 일산 최혜연 성도 부친상 고 최준락
2/1(월) 동대문중앙 김운숙 권사 모친상,
박중현 피택장로 빙모상 고 이애순
2/1(월) 이촌 박상호 집사 부친상 고 박대원
2/2(화) 서빙고 정미경 권사 모친상, 한찬경 성도
빙모상 고 김영록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21년

1월 30-31일, 2월 6-7일

선교헌금 작성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선교헌금 작성 방법

1. 현장 작성 (2021년 1월 30-31일, 2월 6-7일):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2. 온라인 작성 (상시 작성 가능):
선교헌금작성 QR코드



3. 전화 작성 (상시 작성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재능기부 신청 방법

-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02-3215-3211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